

AUTHOR 송인규

TITLE 칼빈을 본받음

IN 신학정론

vol. 52 (5, 2009): 5-11

| 권두언 |

칼빈을 본받음

송 인 규

[조직신학 · 교 수]

올해가 칼빈 탄생 500주년이라 하여 기독교계가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다. 개혁과 공동체나 장로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학회, 연구소, 출판사, 교육 기관까지 온통 칼빈 일색이다. 왜 이토록 분요하다 싶은 정도로 술렁이는가?

말씀의 지도자 칼빈

필자는 그 답을 히브리서의 한 구절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13:7)에서 찾고 싶다. 히브리서 가지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소천한 신앙의 선배들을 염두에 두고 권면을 베푼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생애의 끝까지 일관된 삶을 살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바로 그런 지도자들의 삶과 믿음을 기억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본받으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대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칼빈일 것이다. 칼빈은 종교개혁 첫 세대의 가치를 이어 받아 안정권에 진입시킨 역전의 투사요, 무엇보다도 개혁파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씨를 뿌리고 모판을 마련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칼빈 같은 말씀의 지도자로부터 삶과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처사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칼빈의 삶과 믿음을 기억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떤 구체적 방침을 취함으로써 칼빈 본받기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칼빈을 탐구함

칼빈을 제대로 기억하려면 칼빈, 즉 그의 인물됨과 그의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와 동시대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가 남긴 글, 또 그에 관한 해설을 통해서만 그를 알 수 있다. 다행히도 그의 저술이 그대로 보존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오는 까닭에 역사적 자료의 확보에 있어서만큼은 별 어려움이 없다.

다른 모든 역사적 인물의 경우에 그렇듯이 칼빈 탐구에 있어서도 일차적 자료나 이차적 자료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다. 오늘날 칼빈을 알고자 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료들을 (i) 전기, (ii) 주석서, (iii) 기독교 강요, 이 세 가지로 대별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물론 이외에도 편지나 여러 가지 논문들, 칼빈에 대해 언급한 동시대적·지후 인물들의 증언이나 기록 등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자.)

칼빈의 생애와 인물됨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이차적인 것이다. 그가 상세한 자서전을 남기지 않은 이상, 우리로서는 전기 작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기는 매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에서 시작하여 매우

학구적인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만일 어떤 이가 칼빈을 처음 대한다면, 자기 수준에 맞고 현재 자신의 인식적·신앙적 지평을 열어 줄 수 있는 종류의 전기를 택하면 된다. 또 만일 어느 정도 칼빈의 시대와 개인적 배경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좀 더 깊은 수준의 전기를 택해서 읽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칼빈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주석서이다. 이런 주석서에 처음 접하거나 단편적으로 접근했던 이들은, 칼빈의 주석서가 있는 성경의 어떤 책을 정하여 함께 읽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읽기”의 성격을 QT식으로 좀 더 경건하게(devotionally) 하든지, 아니면 심층적인 본문 연구를 목표로 하여 학구적으로(academically) 하든지 하는 것은 각자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정하면 된다.

혹자는 여기에서 칼빈의 주석서를 직접 대하기 전에 미리 이차적 자료인 구약 주석이나 신약 주석 등에 대한 해설서를 먼저 읽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할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의 사상 파악에 있어서 일차적 자료와 이차적 자료가 갖는 역할은 변증법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라서, 어떻게 한마디로 원칙을 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어쨌든 이차적 자료를 통한 파악은 조만간(만일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것이므로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칼빈 사상의 정수요 핵심으로 지목을 받는 것은 역시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진 기독교 강요이다. 여기에서도 일차적 자료와 이차적 자료의 문제가 대두된다. 칼빈의 가르침과 사상에 생소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강요 번역판을 떠맡어 주며 읽으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그 일을 “강요”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이들에게는 먼저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차적 자료를 권하고 싶다. 역시 여기에도 각 권과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한 단순한 안내서부터 시작하여 꽤 수준이 높고 신학적 통찰력을 갖춘 것까지 다양한 책자들이 있으므로, 자신의 수준과 처지에 맞는 입문서를 골라야 한다.

만일 어떤 이가 기독교 강요를 띄엄띄엄 읽었는지 부분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참에 전체 읽기(total reading)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읽기는 제1권부터 제4권(총 80장)까지 쉬지 않고 순차적으로 읽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만일 그것이 너무 야심차게 여겨진다면 우선 제1권(18장) 읽기만을 목표로 해서 출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노력은 중단되기가 쉽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장기간 동안 함께 독려하며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 칼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강요와 주석서들을 통합식으로 읽는 방법도 강구해 볼 만하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를 읽어 나가면서 칼빈이 인용한 구절의 주석서를 찾아 그 곳의 설명을 살펴보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통합식 읽기는 시간 소요가 많고 진척이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독특한 방식이다. 사실 칼빈 사상에 대한 과거의 연구가 너무 기독교 강요에만 치우치고 그의 주석서를 무시해 온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와 같은 통합식 읽기가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칼빈을 재현함

그러나 우리의 칼빈 탐구가 탐구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3:7에서도 말씀의 지도자들이 보여 준 행실과 믿음을 기억하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뿐 아니라 끝내 본받는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언명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칼빈 탐구 역시 칼빈의 행실과 믿음을 본받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칼빈 탐구에서 밝혀진 바를 인식의 대상으로만 가두어 두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 작업 — 필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재현”이라 표현하고자 하는데 — 이 없으면, 결코 칼빈을 닮는 일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칼빈이 드러낸 모범적 면모를, 칼빈 탐구의 세 가지 자료와 상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기에서 신앙의 모범을, 주석서에서 사역의 모범을, 기독교 강요에서 사상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칼빈의 생애를 통해 신앙의 모범을 발견한다. 칼빈의 생애가 파란만장하고, 핍박과 도피와 질병과 사별과 반대와 위협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는 예측을 불허하는 사태의 변화와 생사가 걸린 결단의 순간에 직면하면서도, 신앙의 도리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저머게 하는 그의 결단 모습은, 특히 1540년 10월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다. 그 때 칼빈은 자기를 쫓아낸 제네바 의회로부터 다시금 돌아와 달라는 간곡한 제의를 받은 터였다. 인간의 성정으로 말하자면 칼빈은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그를 휘감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이 문제에서 제 자신의 주인은 제가 아님을 기억하며, 저의 심장을 희생 제물로 주님께 바치며 …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슬에 묶인 저의 영혼을 다 드립니다.” 칼빈의 이러한 결단은 제네바와 개신교의 운명과 개혁과 신앙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데 역사적 전기가 되었다.

만일 우리가 칼빈의 이러한 순교적 각오와 전폭적 헌신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에 재현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칼빈 탐구는 한낱 지적 유희와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요 칼빈을 본받는 일로부터 한 없이 떨어진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칼빈에게서 신앙의 모범뿐 아니라 사역의 모범도 접하게 된다. 그는 제네바 건설의 기본 원동력을 말씀의 사역에서 찾았다. 주일의 두 차례 강설, 월·수·금요일의 격주 강설, 화·목·토요일의 공개강좌는 모두 성경에 대한 설명과 풀이였다. 그는 성경의 어느 한 권을 택하여 한 장씩,

또 한 절씩 강해하는 것을 말씀 사역의 골조로 삼았다. 그는 편안하고 여유 있는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스케줄로 분주하고 종종 병마에 시달리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신을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상기와 같이 말씀 사역을 끈질기고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이다.

우리가 칼빈을 본받기 원한다면 이러한 말씀 사역의 모범 또한 백안시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꾸준하고 성실한 말씀 사역만큼은 우리의 목회 현장에 그대로 재현되어야 한다.

칼빈을 본받아야 할 마지막 사항은 그의 사상에 관한 것이다. 칼빈은 자신이 믿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체계를 기독교 강요에 담아내었다. 1536년에 발간된 요리 문답 형식의 초판에서 시작하여 생애를 마감하기 몇 해 전인 1559년의 완성판에 이르기까지,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고치고 가감하고 보완하는 일에 엄청난 열정과 정력을 쏟아 부었다. 그는 20년 이상에 걸친 노력을 통해 교회의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진술하고자 힘썼던 것이다.

칼빈이 자신의 신앙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 이러한 노력 또한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바를 자기 나름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칼빈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 자료와 전례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풍성한 신학 전통을 사장시키지 말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 사상을 체계적으로 — 그것이 언약 신학의 틀이든 “하나님 나라”라는 주지(主旨)에 입각한 것이든 간에 —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상의 면에서 칼빈의 모범을 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자신의 생애를 치열히 살다가 갔다. 그렇기에 그의 신앙과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히브리서 13:7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칼빈과 같을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칼빈을 본받을 때, 우리의 신앙 후배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라보며 매우 소박한 정도로나마 히브리서 13:7의 교훈을 되새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 이것만이, 칼빈 탄생 500주년의 의의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는가?!